

한국어 {뜻}의 의미 기능

최 주 일*

1. 序 言

“뜻이 작으면 스스로 만족하기가 쉽고, 마음이 가벼우면 스스로 쟁 체하기가 쉽다”는 글에서, ‘뜻’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리 언뜻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양면적 결합체이다. 언어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뜻’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조그마한 과제임엔 틀림 없으리라 본다.

그러기에, 필자는 현대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 고유 단어인 ‘뜻’의 의미기능에 대하여¹⁾

- 1) ‘뜻’의 의미가 무엇이며,
- 2) ‘뜻’의 多意性(polysemy, vielvertigkeit)이 어느 정도이며,
- 3) ‘뜻’의 기본(중심)의미와 그 기본의미에서 연상(파생)된 연상의미(associative meaning)가 무엇이며,
- 4) ‘뜻’이란 단어가 문맥 또는 맥락(발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 5) ‘뜻’의 의미 영역(semantic domain) 등을, 주로 통사적 관계에서 문맥(장면)에 나타나는 ‘뜻’이 지닌 의미 기능의 다양성을 통사·의미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 사범대학 조교수

1) 일찌기 이승녕(1975)은 15세기 ‘뜻’의 多意性을 살핀 바 있다. 필자는 평소 국어의미론에서 ‘뜻의 의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승녕(1975)과 Ogden &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이 제기가 되어 이번에 이 글이 씌어진 것이다.

우리말 <‘뜻’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① 의미의 규정과 ② 언어와 思考 문제를 아울러 다루면서, 그 論議를 전개하고자 한다. 게다가 ‘뜻’의 의미와 관련되는 漢字語의 의미와 영어·독어와도 서로 對比하면서 살핀다.

2.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meaning, Bedeutung)’란 무엇인가? 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미’를 규정하려고 했다.

그 중 Ogden & Richards(1923:186-187)²⁾는 ‘의미’에 대한 定義를 3 그룹으로 묶어 16개의 사항 요소로서 의미의 종류를 23가지를 들고 있다. ‘의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특히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에게는 ‘의미’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의미 규정’을 내린데 대한 의미 규정의 諸說을 보면 이렇하다.

- ① 의미란 일종의 ‘관념(개념)’이다 — 관념설
- ② 의미란 일종의 ‘心像(이미지)’이다 — 심상설
- ③ 의미란 일종의 ‘思想(채시)’이다 — 사상설
- ④ 의미란 일종의 ‘提示(物)’이다 — 提示(物)說
- ⑤ 의미란 문맥에 나타나는 일종의 ‘반응’이다 — 반응설
- ⑥ 의미란 문맥에 나타나는 일종의 ‘장면’이다 — 장면설
- ⑦ 의미란 문맥[또는 장면]에 나타나는 ‘분포’이다 — 분포설
- ⑧ 의미란 문맥[장면]에서 의미와 의미 사이의 그 ‘의미 관계’인 것이다 — 의미 관계설
- ⑨ 의미란 일종의 언어의 ‘사용’이다 — 사용조건설(용법설)
- ⑩ 의미란 문장에서의 ‘진리조건’이다 — 진리조건설
- ⑪ 의미는 발화의 의사·소통과정에서 화자의 발화 意圖이다 — 發話意圖說

등의 여러 설이 있다.

여기서 ①~④의 의미 규정은 단어(어휘)의 의미 자체에 대한 개념 규정이고, ⑤~⑩설은 단어(어휘)의 기본의미에 부수되는 주변 근접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의미 규정이며, ⑪설은 화자의 발화 의도에서 본 의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규정의 諸說을, Kempson(1977: 11-12)³⁾은 일상언어의 의미에 대해 세 항목으로 요약하여

- ①~⑨설은 어휘 의미의 본질 규명,
- ⑩설은 문(Sentence) 의미의 본질 규명,

2) Ogden &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and London.

3) R.H.Kempson(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①)설은 발화(Utterance) 행위의 과정에서 본 의미의 규정으로 설명하였다.

의미 규정에 대한 이상의 여러 설을 보더라도,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그 규정의 어려움은, 어휘(단어) 기능의 다양성에서, 그리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야기된다.

지금까지 의미론의 주된 관심사가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데 있다 하여 '의미'의 개념부터 규정하여 의미를 定義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었다. 우리가 앞에서 의미 규정의 諸說을 보더라도, '의미'가 얼마나 그 범위가 넓으며, 多樣的 方法(論)으로 다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관점과 방법론의 차이에서 내려진 의미 규정이다.

철학자는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眞僞의 관점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그들 이론의 바탕을 이루는 자극과 반응의 관점에서, 문예비평가는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화용론자들은 의사 전달 과정의 발화 장면에서 주된 관심을 쏟는 발화행위와 발화의도라는 관점에서, 각기 다른 기준들을 갖고 '의미'를 규정하고자 했었다.⁴⁾

그런데, '의미'란 그 어느 관점으로 규정하여도 항상 미흡한 것을 알게 된 몇몇 학자들은, '의미'라고 하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을 하나의 文型에다 담아 定義하기는 너무 벅차다고 보아, '의미'의 多樣的 측면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多面的인 定義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중 Leech(1974:9-23)⁵⁾는 '의미'를 3가지 관점에서 7가지의 의미로 구분하여 의미 類型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 | | |
|-------------|----|---------------|
| 1. 기본(중심)의미 | —— | ① 개념적 의미 |
| | | ② 내포적 의미 |
| | | ③ 사회적(문체적) 의미 |
| 2. 연상(파생)의미 | —— | ④ 환정적 의미 |
| | | ⑤ 반영적 의미 |
| | | ⑥ 언어적 의미 |
| 3. 의도적 의미 | —— | ⑦ 주체적 의미 |

여기서 Leech는 ① 개념적 의미를 기본 주축으로 하여, 거기에서 연상(파생)된 의미를 ②~⑥의 의미와 화자의 의도적 의미를 ⑦ 주체적 의미로 의미 구분하여 '의미'를 多面的인 전달 가치(Communicative Value)를 지닌 것으로 보려고 하였다.

한편 Lyons(1981:15-16)⁶⁾같은 학자는, 언어는 의도성(intentionality)과 관습성(conventionality)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의미'가 없는 어느 한 단어(언어)의 개념은 무의미하며, 언어의 유의

4) 崔昌烈(1981), '意味' 규정의 한계성, 국어교육 39, 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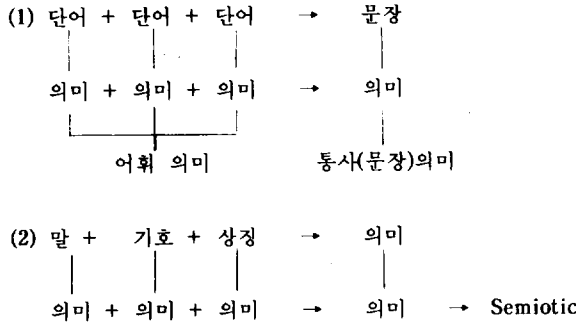
5) G. Leech(1974), Semantics, Harmonds Worth, Penguin Books.

6) Lyons(1981), Language, Meaning and Context, Fontana Paper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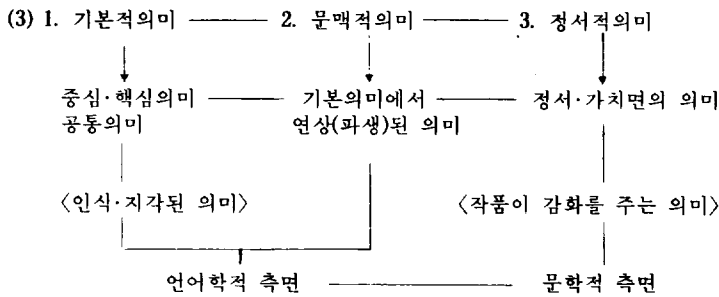
Lyons(1969), Structural Semantics, Oxford.

미성(meaningfulness)을 언어의 본질로서 중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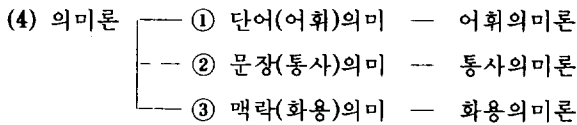
우리가 '의미'를 알기 위해 의미를 연구하는 입장은 간단히 말해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2)는 말을 포함한 기호의 상징이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법칙과 상황 관계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는 광의의 의미론(Semiotic)이다.



※ 1. 기본적인 의미와 2. 문맥적 의미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3. 정서적 의미는 문학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Lyons의 언어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을 중시하며, 언어와 思考에 관련지워 우리 말 '뜻'이 문맥적 표현에서 어떻게 유의미성을 갖는가를 보면서, '뜻'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문맥(또는 맥락)에 쓰일 때 나타나는 '뜻'의 多意性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언어와 思考[언어와 정신]

언어와 思考[정신]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언어 없이도 사고(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일찌기 헤르더(J.G. Herder, 1744-1803)는 “思考는 언어에 있어서, 언어로써,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즉 언어 없이는 想念, 認知가 개념이 되지 못하며, 思考는 명료히 表出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思考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면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 그것은 곧 思考이다”라고 했다.

헤르더의 언어 思想을 이어받았다고 보아지는 훔볼트(Humboldt, 1767-1835)는 언어는 정신적 창조, 정신적 활동인 *Energiea*이다. 이 *Energiea*는 그의 핵심적 사상이다. 언어란 분절된 음성이 사상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영원히 반복되는 정신 활동인 것이다. 그래서 언어란 단순히 인간 상호 의사 소통의 수단만이 아님을 뜻한다. 언어란 인식되어진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이전에 인식된 바 없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요, 결코 ‘대상’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언어적 생산(창조) 활동에 자발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형성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언어란 작용하는 힘으로서 무의식적인 존재를 의식적인 존재로 바꾸어 ‘세계를 精神財’로 改變시키는 [Umschaffen der welt in das Eigentum des Geistes] 일종의 ‘정신적 형성력’(Eine Kraft geistige Gestaltung)이 됨을 뜻한다.⁷⁾ 이러한 훔볼트의 언어 사상은 Saussure의 선구가 되며, Chomsky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사피어(Sapir, 1884-1936)는 언어가 관념, 감정, 욕망을 전하는 방법임을 인정하면서, “가장 세련된 사고(생각)는 무의식적인 언어의 기호 표시(Symbolism)의 의식적 짝에 지나지 않을 것”임은 이해하기 쉬운 일이라 했다. 훔볼트와 사피어는 언어 없이는 思考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軌를 같이하고 있으나, 훔볼트와 달리 사피어는 사고와 언어를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고 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언어에 의존함이 없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든가, 언어는 전달이나 반성이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부수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도대체가 우리에게 일정한 해석을 제공해 주는 우리 사회의 언어 습관에 의존되어 있다.⁸⁾

사피어의 제자인 Whorf(1897-1941)는 그의 논문 <습관적 사고, 행동과 언어와의 관계>에서, 우리

7) Humboldt, Schrefflen Zur Sprachphilosophie.

慎眞晟編(1985), 훔볼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8) Sapir(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의 현실 세계란 객관 세계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인식되어 언어 위에 구축되어진 세계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Whorf(1964: 20 - 134)는 우리의 思考, 인식 구조는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강한 가설(Hypothesis)을 주장했다.⁹⁾

그리고, 하만(Hamann, 1730-1788)은 이렇게 말한다. "말이 없으면 이성도 없고, 따라서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은 언어이며 로고스이다. 나는 이러한 骨髓에 집착한다. 죽도록 여기에 집착한다." 이같이 Hamann에 있어서는 언어와 理性, 사고가 일치되며 언어는 제일의적인 原事實(Infaktum)이며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며 모든 인간 지식의 원천이 된다. 그리하여 Hamann은 思考와 언어는 동일하며 언어가 상이하다면 사고는 언어에 따라 상대적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강한 가설'의 선구가 되고 있다.

결국 언어와 思考 문제에 대한 언어 이론을 보면, 어느 정도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찬·반의 비판은 언어학 성립의 철학적 기반인 觀念論과 實在論에 귀결된다.

觀念論에 입각한 신흘볼트주의(Neu-Humboldtianismus)는 객관적 실재는 인지 주체와 관계없이 실존하며, 실재의 인식이란 그 실재가 인간 의식 속에 관념적으로 모사(模寫)내지 반영된 것이라는 모사설(Abbildungs theorie)과 반영설(widerspiegelangs theorie)을 부인하고, 언어가 현실을 창조하며 나아가 개념 내용, 인지 내용-요컨대 언어적 세계관을 규정한다는 입장을 표방하게 된다.

반영설에서는 현실은 인식자의 인식과 관계 없이 존재한다는 견지에서 心外的, 초의식적 현실을 인정한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에 先在하는 객관적 실재가 정신을 통해서 인간 의식 속에 模寫내지 반영된 것이 우리의 인식이 된다. 이러한 模寫說에 의하면 언어의 능동적, 창조적 힘이 부인되며 언어적 중간 세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Sapir-Whorf의 '강한 가설'은 정면으로 부인된다.

이에 반해서 A.Schaff는 관념론과 실재론의 중용적 입장에서 양자를 함께 부인 하면서, 언어는 '반영'이란 문자 그대로의 뜻에서 인간 의식 속에서의 현실 반영이 아니며, 또한 중간 세계론자들이 주장하듯 언어가 현실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인식 과정은 주관적·객관적 측면의 상호작용이라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Schaff(1974:158)는 반영이란 항상 일정한 주관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현실상을 창조한다. 의식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적 현실의 반영과 현실상의 주관적 창조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함으로써 이 둘은 하나의 전체상을 형성한다.¹⁰⁾

이러한 이론들을 통하여 볼 때, 지금까지 언어와 思考에 대한 언어 이론의 비판에는 세 입장이 있다.

9) Whorf(1964),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ed. Carroll, John B, The MIT Press.

10) Schaff(1974), Sprache und Erkenntnis, Rowohlt, Reinbek, Hamburg.

- ① 언어결정설 — 관념론 — 신흘볼트주의 — 강한 가설
- ② 언어영향설 — 실재론 — 모사설(반영설) — 약한 가설
- ③ 상호작용설 — ①과 ②의 중용적 입장에서 본 견해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으나, 오늘날 대체로 개개의 언어는 인지와 사고 과정을 결정한다는 '강한 가설' 즉, 언어결정설은 부인되고, 개개의 언어는 인지와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약한 가설'이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약한 가설'에 동의한다 함은, 언어에는 언제나 보편적인 면(보편성)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면(상대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Chomsky의 주장대로, 인간 정신은 유한한 수단을 무한히 구사할 수 있는 자유를 享受하고 있지만, 언어에 의한 표현은 마침내 바로 그 언어의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한 독립성과 절대성은 결코 획득할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언어의 상대성을 긍정하는 말이다.¹¹⁾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언어(말)와 사고는 서로 비례한다는 원리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언어의 보편적 현상(Universal of Language)과 언어의 제한성이 인간의 심리 구조와 작용에 기인한다. 특히 인간의 인식 작용이나 심리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언어 현상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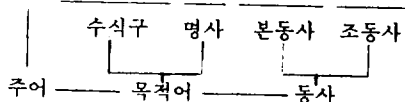
간단한 개념은 그 표현도 간단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긍정형과 부정형에서 긍정형이 기본형이며, 여기에 부정사를 삽입, 첨가해서 부정형을 만든다.

- (1) 국어 : 하다 → 안하다. 못하다. 하지 않다.
 영어 : do → not do.

둘째로, 언어 표현에 심리 구조를 반영해 주는 예는 어순(Word-order)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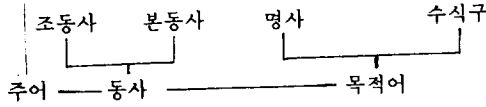
'주어 — 목적어 — 동사'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는 관계사절 수식구가 명사 앞에 오고 조동사는 본동사 뒤에 오는 반면, '주어 — 동사 — 목적어'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는 수식구가 명사 뒤에 오고 조동사는 본동사 앞에 온다는 사실이다.

- (2) 국어 : 그는 산 위에 뜬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11) 정시호(1987), 언어 상대성 이론 연구, 성곡논총 제18집, 성곡학술문화재단

영어 : He was looking at the moon risen over the mountain. 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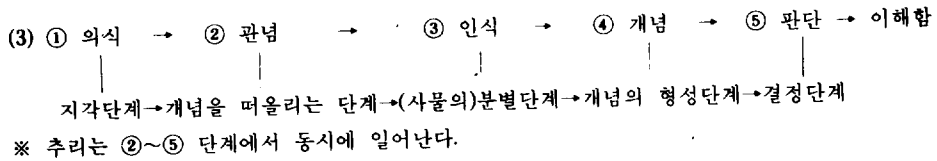


존.록크(John Locke, 1632-1704)는 그의 '인간 오성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언어의 대부분이 일반 술어(terms)이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늘 쓰는 일반적 술어는 時·空의 조건과 분리된 추상성 때문에 일반성을 지닐 수 없게 되며, 또 추상성과 일반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定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그의 개념론(conceptualism)이다. 인간은 단어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어에 일정한 개념을 부여하게 되어 명칭과 그 명칭이 사용되어지는 경우의 의미 연계가 밀접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때문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¹³⁾

한편 Ogden & Richards(1923:139)는 개념이나 정신에 관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데에는 定義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¹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는 思考의 過程을 다음 (3)과 같이 거치게 됨을 볼 수 있다.



참고로 <思考, 觀念, 概念, 意識, 認識>과 <정신, 마음, 생각>의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 思考 :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을 행하는 인간의 理性的의 작용. 思惟와 같은 뜻으로 사용됨.
- 觀念 : 思考의 대상이 되는 의식의 내용. 心的 形象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概念 :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 관념.
- 意識 : 지식, 감정, 의지 따위의 모든 작용을 知覺하는 일. 의식은 대상을 총괄·분별하는 심적 작용 내지 정신 작용임.
- 認識 : 대상을 感知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意識의 작용임.

12) 김진우(1984), 말(言語)과 맘(心理), '말' 제9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13) John Locke(195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ook III of words, chap III of General Terms.

14) Since a Definition is the only way, where by the precise Meaning of moral words can be known. Ogden & Richards (1923:139).

(5) 精神 : ① 사람이 느끼어 앎이 있는 신령한 기운.

② 물질을 초월하여 영묘한 작용을 하는 주체.

마음 : 감정, 의지, 성격 따위의 모든 정신적 상태의 총체. 정신의 정적 상태.

생각 : 사고, 추억, 기억, 상상, 관심, 동경 따위의 정신 작용의 총칭. 정신의 동적 상태.¹⁵⁾

4. {뜻}의 여러가지 의미[多意]

우리말 '뜻'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선 국어사전에서 단어 '뜻'이 어떻게 풀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 조선어학회(1947), 조선말 큰사전(제2권)

뜻[이] ①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먹은 마음

② 글이나 말의 속내(옛말 : 뜯)

2) 문세영(1949), 수정증보 조선어 사전.

뜻[명] ① 마음 속 意志. ② 생각하는 일 ③ 목적 ④ 믿음 ⑤ 이치, 까닭. ⑥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표시하는 것. 意味

3) 신기철·신용철(1975), 새 우리말 큰사전

뜻[명] ①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②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意義.

③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속내. 意味.

4) 이회승(1981), 국어대사전

뜻[명] ①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속으로 갖는 마음

② 말이나 글의 가진 속내. 意味, 義諦.

5) 김민수·홍용선(1981), 국어사전

뜻[명] ① 무엇을 하리라고 먹은 마음. 情趣, intention.

② 글이나 말이 가진 속내. 意味, meaning

이같은 사전의 풀이에서 '속내'란 '속내평'의 준말로, 그 '속내평'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

15) 허용(1981:46)은 정신의 정적 상태가 마음이고, 동적 상태가 생각이라 하면서, 정신, 마음, 생각의 세 단어가 갖는 뜻의 한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익성(1985:23)에서는 정신(Geist)은 '영혼의 반대극'에 위치한다. 정신은 '감각'을 향해 역류하며, 이 감각의 암암리의 강인한 노력을 알려준다. 순수히 지적인 힘의 근원이 감각적 상상력의 생명력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신에 관해 말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마음(Gemüt)과의 관계가 생긴다. 정신은 어떤 의미에선 '마음'의 대변인이다. 실제로 정신(Geist)/마음(Gemüt)의 쌍은 활동성과 감수성의 쌍과 짝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 일의 실상'으로 풀이 되었다. [속내평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의 실상. 內幕, 裏許. (속내.)

그러고 보면 국어사전에서 '글이나 말이 가진 속내'의 풀이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意味'와는 거리가 있다. 큰사전에서의 '의미'는 '事物'의 뜻으로 풀이되었는데, '뜻'과 '의미'는 그 풀이가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며, '뜻'이 多意性을 갖고 있음이 사전에서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고 있다.¹⁶⁾

우리 국어사전의 풀이에서 '뜻'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마음'과 '속내'인데, 특히 '뜻'은 그 의미가 '마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어사전의 풀이에서 단어 '뜻'의 기본의미(핵심의미, Grundbedeutung)가 무엇이며, 그 연상의미 및 多意(polysemy)를 알기는 어렵다.

한국어에서 漢字語는 문맥 없이도 보다 독자적으로 그 의미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지만, 고유어는 전체적으로 보아 문맥적 의미에 의하여 그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는 경향이 있다.〈심재기(1982:204)〉

이 말은 언어학자 Hayakawa(1968:314-315)가 지적한 "문맥은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말의 의미에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우리 머리 속에(思考 속에) 있다.¹⁷⁾ 그리고 Katz(1982)는 "多義語는 문맥에 따라 각각의 의미를 획득한다."¹⁸⁾는 말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는 문맥에 따라 그 단어의 의미가 多意性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本章에서는 우리말 고유 단어인 <뜻의 의미>를 문맥 표현에서 찾아내어 그 多意性을 밝혀 보려고 한다.

例文 설명에서 '뜻'에 대한 오른쪽 < > 속의 의미를 지닌 漢字語의 의미를 곁들여 적어 둔다. 이는 '뜻'의 의미를 좀 더 넓게,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1) ㄱ. 뜻 파악이 힘들다.〈뜻=意味〉

ㄴ. 뜻이 통하지 않는 글은 곤란하다.〈뜻=意味〉

意味 : ① 말이나 글이 가지고 있는 뜻, meaning, Bedeutung.

②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표시하는 것

※ 문맥에서 단어 '뜻'과 '의미'는 그 뜻이 같이 쓰이지만,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

16) 이승녕, op.cit.

17) Hayakawa(196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참고. 그는 The meaning of words are not in the words ; they are in us contexts determine meaning의 다음의 예를 들었다.

ㄱ. I like fish (Cooked, edible fish)

ㄴ. He caught a fish (Live fish)

ㄷ. You poor fish (Not fish at all)

ㄹ. To fish for compliments (To seek)

18) J. Katz(1982), Semantic Theory, Katz는 'bachelor'란 단어는 일종의 문맥에 따라 각각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2) 메타언어의 뜻을 말하라. <뜻=概念(意味)>

概念 :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상하여 종합한 하나의 관념. 또, 판단을 성립 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사고는 개념에 의해서 성립됨.(철학) Conception.

(3) '교양'에 대하여 그 뜻을 말하시오. <뜻=定義(意味, 概念)>

定義 : ① 술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며 개념의 내용을 한정하는 일.

② 개념이 속하는 가까운 類를 들어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고 또다시 種差를 들어 그 개념과 同位의 개념에서 구별하는 일.(논리학)

예를 들면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와 같은 것임. ②가 본질적인 정의임.
(種差) (類概念)

(4) 3.1. 운동의 뜻을 논하시오. <뜻=意義(價値)>

意義 : ① 가치나 중요한 정도.

② 어떤 말·일·행위 등이 현실의 구체적 연관에 있어 가지는 가치 내용.

(5) 단어는 그 단독으로 아무 뜻이 없고, 문맥에 의해서만 재대로의 기능을 갖는다. <뜻=價値, 意味>

價値 : ① 값. 값어치.

②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意義(철학)

③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중요한 정도. 생활에서 보는 사용가치와 재화가 교환되는 교환가치의 두 가지로 나뉨(경제)

(6) ㄱ. 그 사람의 뜻을 물어보라. <뜻=意思(意向)>

ㄴ. 領相의 뜻은 어떠하오. <뜻=意向(意思)>

意思 : ① 마음 먹은 생각. ② 意向.

意向 : 무엇을 하려는 생각. 意思.

(7) 당신의 뜻에 따르리다. <뜻=命令, 指示(意思)>

命令 : ① 웃사람이 시키는 분부

指示 : ① 가리켜 보임. pointing.

②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시키는 일. direction.

(8) 사람은 뜻을 굳게 가져야 한다. <뜻=意志(決心, 信念)>

意志 : ① 마음의 뜻

② 선택하고 결심하여 실행하는 능력. 지식, 감정과 대립되는 정신 작용.

決心 : 마음을 꼭 작정함. 決意. determination

(9) ㄱ. 뜻하는 바가 있어. <뜻=計劃(目的)>

ㄴ. 아무 뜻도 없고, 理想도 없이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뜻=目的(計劃, 希望)>

ㄷ. 뜻을 갖고 살아야 한다.<뜻=希望>

計劃 : 計較하여 일의 엮이를 잡음. 또 그 세운 꾀. plan.

目的 : ① 실현하거나 또는 도달하려는 목표. aim.

② 행위에 앞서서 意志가 그의 실현을 豫定하는 것.(심리)

③ 의지에 의하여 그 실현이 욕구되며, 행위의 목표로서 행위를 규정하는 방향(철학).

目標 : ① 목적 삼는 곳. 목적하여 指向하는 표. mark.

② 개인의 행동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결과.(심리)

希望 : ① 어떤 일을 이루고자 또는 그것을 얻으려는 바람.

②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할 때에 일어나는 감정.(심리)

(10) ㄱ. 뜻이 작으면 스스로 만족하기가 쉽고, 마음이 가벼우면 스스로 져 체하기가 쉽다.

<뜻=抱負(꿈, 希望, 覺悟)>

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뜻=希望, 꿈, 대망>

ㄷ. 뜻을 가져라 (꿈어라). <뜻=抱負(希望, 꿈)>

抱負 : 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또는 계획. aspiration.

覺悟 : ① 미리 깨달아 마음을 작정함.

② 결심함.

꿈 : ① 잠자는 중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물을 체험하는 일.

② 현실을 떠난 思考. Vision.

③ 실현시키고 싶은 바램이나 理想.

④ 현실적이 아닌 환각의 상태.

(11) 訓民正韻을 창제한 근본 뜻을 알아야 한다.<뜻=趣旨, 精神>

趣旨 :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12) ㄱ.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뜻=精神(趣旨)>

ㄴ. 스승의 날을 맞아 그 참 뜻을 되새겨 본다.<뜻=精神(意味)>

ㄷ. 뜻으로 본 한국 역사<뜻=精神>

精神 : ① 마음이나 생각. 영혼↔육체

② 물질, 육체에 대하여 마음의 일컬음.(철학)

③ 지성적, 이성적인 능동적, 목적, 의식적인 능력.(철학)

④ 정신=의식. *정신을 잃다(차리다).

- (13) ㄱ. 선비는 **뜻**을 존중한다(士尙志).〈뜻=志操(精神)〉
 ㄴ. **뜻**을 높이 사고 싶다.〈뜻=氣概(志操)〉
 志操 : 뜻과 바른 操行.
 氣概 : 씩씩한 기상과 뜻과 절개.
- (14) ㄱ. 네 **뜻**대로 하려무나.〈뜻=생각, 마음〉
 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뜻=생각(계획, 마음)〉
 생각 : ① 마음에 느끼는 의견. *내 생각은 이렇다.
 ② 바라는 마음. *생각이 간절하다.
 ③ 관념 *계획은 생각.
 ④ 깨달음 *겨우 생각이 나다.
- (15) 뱀새(燕雀)가 어찌 대붕(鴻鴻)의 **뜻**을 알겠는가.〈뜻=大志, 생각〉
 大志 : 크고 웅대한 뜻. 鴻志
- (16)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을 줄이야 그 누가 **뜻**했으랴.〈뜻=짐작, 헤아림, 생각〉
- (17) 화자의 **뜻**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뜻=의도, 생각, 마음〉
 意圖 : ① 마음 속으로 장차 하려는 계획.
 ② 의도=생각.
- (18) 민주화를 내걸면서 하는 짓과 **뜻**은 다르니 …… 〈뜻=속셈(意圖, 底意)〉
 속셈 : 마음 속으로 하는 셈. *그의 속셈을 간파하다.
- (19) ㄱ. 오늘은 일할 **뜻**이 내키지 않는다.〈뜻=기분, 마음〉
 ㄴ. 지금 밥 먹을 **뜻**이 없는 모양이다.〈뜻=기분, 생각, 마음〉
 氣分 : ① 마음에 저절로 느껴지는 상태.
 ② 어떤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감정 상태.(심리)
 마음 : ① 사람의 智·情·意의 움직임,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의 총체.
 ② 시비 선악을 판단하는 힘.
 ③ 마음=ㄱ. 人情 ㄴ. 뜻 ㄷ. 誠意 ㄹ. 心靈(성경)
 ※ ③에서 마음의 뜻이 '인정, 뜻, 성의, 심령'등으로 풀이한 것은 좁은 의미의 뜻과 넓은 의미의 뜻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정신/마음/생각'의 의미 차이와 그 구별은 앞에서 언급한 3장의 (5)와 註 15)를 참조하기 바람.

(20) 부친이 살아 계시면 어른의 뜻을 살펴서……〔父在觀其志〕〈뜻=意中, 心氣(機)〉

意中 : 마음 속. 心中. one's mind.

心氣 : ①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

② 마음으로 느끼는 기분. feeling.

心機 : 마음의 활동. 마음의 기능.

(21) 어찌보면 나의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독자들의 共感 속에서만 오로지 그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뜻=심정, 감정, 생각(내용)〉.

心情 : 마음과 정. 마음의 情況.

(22) 詩는 뜻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詩者志之所之也〕, 〈뜻=感情, 情緒〉.

感情 : ① 사물에 느끼어 일어나는 心情. 마음, 기분, 생각.

② 快, 不快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주관적 측면.

情緒 : 快, 不快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주관적 측면, 감각이나 관념에 따라 일어나는 주관적 정신 활동으로, 이에는 흔히 생리적 변화가 따름. 그 중 본능적이며 신체적인 표출이 특히 심한 것을 情緒라 하며 한층 고등의 복잡한 情操와 구별하기도 함.(심리).

(23) 동지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자.〈뜻=主張, 要望〉.

主張 : ① 자기의 의견과 주의. opinion.

② 자기의 의견을 내세움.

要望 : 꼭 그리하여 주기를 바람.

(24)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노라.〈뜻=所願, 所望, 素望〉

所願 : 원하는 바, 바라는 일. wish.

所望 : 바라는 바, 바람.

素望 : 본디부터 바라는 일. 希望.

(25)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소.〈뜻=表示하다. 나타내다〉

表示하다 : ① 나타내어 보임.

② 남에게 알려려고 드러내어 말함. expression.

(26) 침묵은 때때로 동의를 뜻한다.〈뜻=暗示, 許容〉

暗示 : ① 던지시 깨우쳐 줌. hint.

② 의지의 매개를 꺼치지 않고 직접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일으키는 관념 작용.(심리) suggestion.

(27) 비둘기는 무엇을 뜻하지요. <뜻=象徴, (暗示)>

- 象徴 : 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어떠한 물건이나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 symbol.
 ② 추상적으로 특징을 표시함.

(28) 좀 뜻 있는 사람이면 이 글을 읽을 것이다. <뜻=關心, 생각>

- 關心 : ① 마음에 두고 늘 잊지 못함. concern.
 ② 가치있는 것에 주의하는 심적 태도.

(29) 무슨 뜻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뜻=영문, 까닭, 理由>

- 영문 : 까닭, 형편, reason.
 理由 : 까닭, 事由, 내력. reason.

(30) 뜻하지 아니한 일이 생겨서…… <뜻=豫期, 豫像(裳), 期待>

- 豫期 :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기대하거나 想定함. anticipation.
 豫像(裳) : 어떠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함. expectation.
 期待 : 기다림, 예기하여 바람.

(31) 그것은 고귀한 중간색의 뜻을 떠는지(지냈는지) 궁금하다. <뜻=色彩, 기미(깃새)>

- 色彩 : ① 빛깔. ② 빛깔과 文彩.
 幾微[깃새] : 일의 아룀한 기틀. 눈치.

(32) ㄱ. 그게 무슨 뜻이냐. <뜻=말, 소리>

ㄴ. 그것은 앞뒤 내막을 잘 모르고 한 뜻이다. <뜻=말, 소리>

(33) 요즈음 무슨 뜻으로 사나. <뜻=재미, 樂(즐거움), 취미>

- 재미 : ① 아기자기한 취미. 樂.
 ② 유쾌한 맛.
 취미 : ① 본업 이외에 즐기는 일. taste.
 ② 좋아해서 하는 일. interest.

(34)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이 뜻을 전해다오. <뜻=辭(詞)緣.(편지 내용)>

- 辭(詞)緣 : ① 하고자 하는 말.
 ② 편지 내용.

(35) 놀이가 곳과 연결되고 곳에 문화사적, 예술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려는 뜻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뜻=本意(本義), 참뜻>

本意 : ① 진정한 마음. ② 본래의 마음. ③ 진정한 뜻. 근본의 뜻.

本義 : 참뜻. 本旨. true meaning.

(36) ㄱ. 길수의 속뜻이 일을 이 지경으로까지 끌고 갈 줄이야…… <속뜻=속마음>

ㄴ. “밀 익는 오월이면 / 보릿 냄새/어느 것 한 가진들/싫어 안 오리”에서 밑줄친 부분의 속뜻은? <속뜻=기본의미>

ㄷ.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에서 밑줄친 부분의 속뜻은 무엇인가? <속뜻=숨은 뜻(은유)>

속뜻 : ① 마음 속으로 품고 있는 깊은 뜻.

② 글 속에 흐르고 있는 기본의미.

③ 글에 표현된 글 속의 숨은 뜻.

(37) 무상한 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지상의 현상을 모두가 영원한 신의 마음의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뜻=앞의 말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기능>

(37)에서 '뜻'은 앞에 표현된 말, 즉 밑줄친 부분의 말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8) 당신이 엄숙하게 명령하시면

우리들의 용기는 더할 데가 없게 됩니다.

더 없이 아름다운 뜻에서 순결한 처녀여,

승배할 만한 어머니시여. <뜻=것(아름다움)>

(38)에서의 '뜻'은 {것}의 기능처럼 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뜻을 지닌 단어(여기서는 아름다움)이어서, 그 뜻을 實在化하여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 그 추상적인 단어에 연결되어 선행어의 뜻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의미의 推移現象이라 할 수 있다.¹⁹⁾

(39) ㄱ. 우정은 역경 속에서 그 향기를 발산한다. 이 말은 어려울 때 사귄 친구가 오래간다는 뜻이다. <뜻=主題의 內容>

ㄴ. 하느님의 뜻이 신앙에서 최고의 가치이듯이, 정치에서는 국민의 뜻이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뜻=主題(話題)의 內容>

ㄷ. 詩란 溫柔敦厚하게 感化하는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가슴속 깊이 감동시켜 감화(교화)하는 힘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시의 뜻을 바로 이해하여야만이 시를 제대로 알게 된다. <뜻=話題의 內容(意味)>

19) 拙稿(1985), 한국어 {것}의 의미 기능과 용법.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 참고.

(39)에서는 主題 또는 화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뜻'이 가리키는 내용이 결정된다. 즉, 話題가 우리의 고유 전통에 관한 것이면 고유전통을 가리키며, 음악에 관한 것이면 음악을 가리키게 된다.

(40) 뜻과 같이 되니까 입맛이 변한다. <뜻=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

(40)은 우리 속담으로서, ① 오래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벌써 싫증을 느낀다. ②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입맛이 없어짐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의 경우는 (40)에서 '뜻'이 갖는 문자적인 단어 의미로서는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속담은 화용상 내지 사회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속담이 생기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그 사회의 관습상에서 오는 문화적, 사회적 특성 등을 이해하여야만이 속담의 의미를 알게 된다.

'뜻'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말 뜻과 관련되는 漢字를 찾아, 그 漢字가 갖는 字意(글자의 뜻)을 보기로 한다.

'뜻'의 의미를 지닌 漢字에는 意, 義, 思, 志, 念, 考, 旨, 辭, 情 등이 있다.

<意> : 1. 뜻 의 ① 마음의 발동 : 意志, 意識

② 생각 : 如意

③ 사심, 사욕 : 意必固我

④ 정취 : 等意幽閒

⑤ 글이나 말의 의미 : 意味, 意思, 大意, 意向[무엇을 하려는 생각]

2. 헤아릴, 추측할 의 : 妄意室中之藏

3. 생각할 의 : 吾意不然

<義> : 1. 뜻, 의미 의 : 文義, 大義

<思> : 1. 생각의 뜻을 가짐 : 思考, 思念, 思惟, 思想, 思索 등

2. 思惟함 : 思考, 三思而後行

3. 유의함 : 不思而得

4. 바람 : 思修身, 不可以不事親

<志> : 1. 뜻 지 ① 의향, 의사 : 匹夫不可奪志也

② 본심, 본의 : 謂之宗志

③ 감정 : 以制六志

④ 희망 : 過於其志

⑤ 의사의 표시 : 孔子之喪, 公西赤僞志焉

2. 뜻할 지(할 마음을 먹음) : 志於道

3. 기억할 지(잊지 아니함) : 博聞強志

4. 적을 지 : 孔子聞之曰, 弟子志之

<念> : 생각 념 : 念願, 思念

<考> : 상고할 고 ① 곰곰 생각함 : 熟考, 考察

② 조사함 : 考證, 考古學

<旨> : 뜻 지 ① 意向 : 高旨

② 의의 : 旨義, 旨趣

③ 天子的 뜻 : 聖旨

<辭> : 1. 말(솜) 사 ① 언어 : 言辭

② 문장 : 文辭

③ 말의 뜻, 언어와 의미 : 辭命, 社說

2. 알릴 사 : 使人辭於孤突

3. 청할(요청) 사 : 大夫辭而復之

4. 문체의 하나 사 : 秋風辭

<情> : 1. 뜻 정 : 사물에 감촉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 性情[감정과 정서]

※ '의미'의 뜻이 아님

2. 욕정, 욕망 : 情念[감정에서 일어나는 생각]

3. 실제, 진상, 실상 정 : 推鞠得情

4. 사정 정 : 형편, 상태 : 情況, 情勢

5. 심정 정 : 情調 [마음의 정황]

6. 정성 정(성심성의) : 情實, 情偽

7. 멋 정(정취, 취미, 재미) : 風情, 情景

이상의 漢字가 갖는 字意에서도 공통되는 점은 '마음(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意'와 '志'는 그 뜻이 心에서 생긴 字이며, '思, 意, 志, 念, 情'의 글자는 모두 '心'이 들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漢字의 字意와 관련지워 우리말 '뜻'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고유어 '뜻'은 "마음, 생각, 정신"에서 생긴 일종의 심적 작용이나 정신 작용에서 나온 추상적인 개념상의 단어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의미의 규정에서 본 '의미'를 ① 관념, ② 심상, ③ 사상, ④ 지시, ⑤ 반응, ⑥ 장면, ⑦ 분포, ⑧ 의미의 관계, ⑨ 용법(사용조건), ⑩ 진리치(진리조건), ⑪ 발화의도 등의 의미 규정의 諸說과 언어와 사고(정신)의 관계에서 본 ① 思考, ② 精神, ③ 마음, ④ 생각, ⑤ 의식, ⑥ 인식, ⑦ 개념(관념), ⑧ 판단 등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우리말 '뜻'의 의미는 사고, 관념, 개념, 의식, 인식과 인간의 마음, 정신, 생각에서 생기는 심적 작용 내지 정신 작용의 요소를 지닌 추상적 단어(word)라고 하겠다.

이는 다음의 영어, 독어에서 우리말 '뜻'과 관련되는 어휘의 의미를 보아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1) 독일어의 경우에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진다.

1. [의미] : Bedeutung(f), Sinn(m), Wichtigkeit(f).

ex) ① Was bedeutet dieses wort?(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② Das habe nicht in dem sinne gesagt.(그런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③ Verstehen sie mich?(내 말 뜻을 알겠소?)

2. [의지], Wille(m)

- ① 의도 : Absicht(f) : Die Absicht haben, Staatsman zu werden.(정치가가 될 뜻을 세우다.)
- ② 목적 : Ziel(n) : Sein Ziel erreichen.(뜻을 세우다)
- ③ 대망 : Ehrgeiz(m) : Wo ein wille ist, ist auch ein weg.(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3. [감정] Gefühl(n)

- ① 호의(der gute wille) : Das ist nur eine Kleinigkeit, aber bitte nehmen.(작은 뜻의 표시이니 받아주십시오)
- ② 기대(Erwartung(f)) : in Erwartung Ihrer gefälligen Antwort.

※ 'Bedeutung'의 의미 속에는 우리말 '뜻'이 지닌 의지, 감정에 속하는 의미가 없다. 즉 독어에서는 의미(Bedeutung), 의지(wille), 감정(Gefühl)의 의미로 구분되어 쓰인다.

2) 영어의 경우에도 셋으로 나뉘어 진다.

1. [의미] : meaning, sense, significance, import, purport, point, purpose : effect. mind,

- ① the meaning of word(말의 뜻)
- ② senseless talk (뜻이 통하지 않는 말)
- ③ a narrow/broad/strict/literal sense (좁은/넓은/엄밀한/글자대로의 뜻으로)
- ④ take it in a favorable sense (좋은 뜻으로 해석하다)
- ⑤ I received a letter to the effect that he is getting along well.(잘 있다는 뜻의 편지를 받았다.)
- ⑥ Don't got me wrong, I had nothing bad in mind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나쁘게 생각마.)

2. [의향 (마음)] : intention, intent(one's mind), interest

- ① have on intention, have a mind to do (~할 뜻이 있다.)
- ② sound a person's views.(남의 뜻을 떠보다.)
- ③ Come to an understanding, understand each other(뜻이 서로 통하다)
- ④ I haven't the slightest intention of going into business.(장사할 뜻은 조금도 없다)
- ⑤ Those interested are welcome to attend. (뜻 있으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 ⑥ You shouldn't do anything against your parents wishes.(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

3. [목적, 희망, 의지] : aim, object, purpose, hope, mind, will, ambition, aspiration, dream.

- ① an ambition(aspiration).(큰 뜻)
- ② set an aim in life.(뜻을 세우다)
- ③ attain one's object(aim).(뜻을 이루다)
- ④ Everything goes wrong : one's hope are dashed.(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다)
- ⑤ He died before he could realize his dream(aspiration)(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 영어 'mean'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뜻도 갖고 있다.

- ① to represent(meaning) : The red light means 'Go'.

- ② to intend (to say) : I mean go tomorrow.
 - ③ to be determined about : I mean what I say.
 - ④ to intend because of abilities, fate : He is not means for a soldier and will always be.
 - ⑤ to be a sign of : The dark clouds mean rain.
 - ⑥ to be of importance by(a stated amount) : Does success in examinations really mean anything when —.
 - ⑦ be supposed to : You're mean to take your shoes off when you enter a Hindu temple.
 - ⑧ mean well : Mary means well. (메리는 잘 있느냐)
 - ⑨ Mary means trouble.(메리는 문제(사고)야)
- ⑨의 means는 그 의미가 重義的(ambiguous)이다. 그래서 그 뜻이 모호하다.

지금까지 문맥에 나타나는 '뜻'의 多意를 漢字와 독어 및 영어와 對比하면서 살펴보았다.

Leech가 단어 의미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의 문제점은, 의미와 의미 사이의 [개념적 의미와 연상미, 또는 연상미들 사이] 의미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다. 그리하여 의미와 의미의 범주 사이의 경계 책정이 문제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말 '뜻'의 의미도 多意語들 간의 의미의 경계가 모호하다. 즉, 각기 다의적 의미 간의 뜻 구별이 모호하다. 이를테면 意向-意思, 意向-意思-意圖, 計劃-目的-目標, 마음-정신-생각-思考 등이 共存하여 서로 混用되어 중복되고 넘나들기도 한다. 그리하여 '뜻'이 갖는 多意語間의 의미 차이가 모호하며 불투명하다. 그 근본 원인의 하나는 '뜻'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인식하여 實在化하여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結 論

우리말 고유 단어 '뜻'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미 규정에 대한 諸說과 언어와 思考(精神)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을 관련지우면서 동시에 국어 문맥(장면) 표현에 나타나는 '뜻'의 多意性을 주로 통사·의미면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룬 것을 다시 論議하면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맥(장면)의 표현에 나타나는 단어 '뜻'의 의미는

- ① 표시하다(나타내다), ② 意味, ③ 概念, ④ 定義, ⑤ 本意, 참뜻(本義), ⑥ 숨은 뜻(은유), ⑦ 기본의미 ⑧ 암시, ⑨ 상징, ⑩ 명령[지시], ⑪ 觀念, ⑫ 가치, ⑬ 意義, ⑭ 중요, ⑮ 意向, ⑯ 意思, ⑰ 意圖, ⑱ 計劃, ⑲ 目的(目標), ⑳ 意志, ㉑ 決心, ㉒ 각오, 포부, ㉓ 大志, ㉔ 희망, 꿈, ㉕ 소망(소원), ㉖ 생각, ㉗ 思考, ㉘ 關心, ㉙ 짐작, ㉚ 意中, ㉛ 속셈, ㉜ 기미[겉새], ㉝ 마음[속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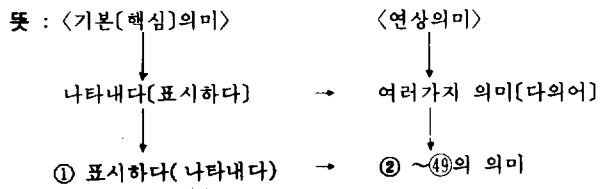
③4 정신, ③5 취지, ③6 취미, 재미, ③7 志操[氣概], ③8 감정, ③9 기분, ④0 정서, ④1 主張[要望], ④2 豫想[期待], ④3 辭緣, ④4 영문(理由), ④5 말[소리], ④6 것=의미의 推移化, ④7 앞의 말을 대신하여 가리킴, ④8 화제[주제]의 내용, ④9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속담 경우] 등등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2) 이처럼 고유 단어 '뜻'은 문맥에서 그 의미가 매우 多意的이다. 게다가 함의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지녀 細分化된 한자어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 국어 어휘에서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의미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경우이다. 그리하여 단어 '뜻'은 훨씬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뜻'의 다의어에 해당하는 한자어 意味/意義/概念/意思/意向/意志 등은 훨씬 細分化되어 한정적인 의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국어 어휘 중에는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 의미를 지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3) 단어 '뜻'이 문맥[장면]의 표현에 따라서 多意性을 갖게 되었다. 이는 바로 문맥[장면]이 '뜻'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단어 자체가 단독으로 多意를 지닌 것이 아니라, 문맥의 통사적 구성 관계에 따라 다의성을 갖게 된다. 국어 어휘에서 漢字語는 문맥 없이도 그 단어가 독자적으로 의미를 스스로 갖는데 비해, 고유어는 [여기서는 '뜻' 경우] 대체로 문맥적 의미에 의하여 그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는 경향이다.²⁰⁾

4) 본문의 例文에서 '뜻'의 의미를 < > 속의 의미와 서로 교체해 보면 그 문맥에서 '뜻'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른바 치환음미법(substitution test)으로 '뜻'의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때 하나의 문제는 의미와 의미 간의 뜻 구별이 모호하며 다의어들의 범주 사이에서 그 의미의 한계나 경계(boundary) 책정이 어렵다. 이를테면 意向, 意思, 意圖, 意志, 意中, 目的, 目標, 소원, 소망, 마음, 정신, 생각 등에서 그 의미의 한계가 문제이다. 이때 이들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여 검증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5) '뜻'의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것을 기본(핵심) 의미로 삼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여기서 필자는 '뜻'의 의미 중에서 기본의미는 "나타나다[표시하다]"로 삼아 거기에서 여러가지 연상된



※ 앞 1)의 ①~④9까지의 의미 참고.

20)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p.204, 참고.

연상의미의 다의어가 생긴 것으로 보고자 한다.²¹⁾

6) 국어 단어 '뜻'은 의미 규정의 諸說에서 본 11가지 요소와 언어와 사고(정신) 관계에서 언급된 思考의 過程에서 5가지 단계(의식-관념-인식-개념-판단)에다 정신, 마음, 생각의 작용과 Ogden & Richards(1923:186-187)의 23가지의 의미 종류 중 해당 사항 등의 諸要素들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국어 단어 '뜻'의 의미는 思考, 觀念, 概念, 意識, 認識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에서 생기는 심적 작용 내지 정신 작용의 요소를 지닌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단어(word)라고 하겠다.

7) 국어 어휘의미론에서 단어(어휘)의 의미를 살필 때, 그 단어의 핵심의미를 기본의미로 삼아, 그 기본의미에서 여러가지로 파생된 연상의미들을 파악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단어(어휘)의 미가 하나의 類型이나 분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그 단어의 의미가 때로는 서로 넘나들거나 겹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의 定義를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미쳤다(madness)'라는 단어의 정의를 말하려면, "진짜로 '미쳤다'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미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²²⁾라는 말과 다름 없다.

아무리 고유 단어 '뜻'의 의미를 말이나 글로 죄다 記述하려해도, 言語不感症에서 퍼뜩 깨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오묘한 진리는 말과 글로서는 죄다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스스로가 自覺하여 得道하는 수밖에 없다는 '不立文字'의 말과 언어와 문장(말과 글)의 목적은 자기의 意思를 충분히 나타내면 그만이라는 <辭達而已矣>의 말을 새삼 실감할 뿐이다.

21) 이승녕(1985)은 '뜻'의 多意에서 原義는 '생각·意思'로 보고 거기에서 생긴 多意(8가지)를 副意로 推想했었다.

그런데, 漢字의 意는 ① 말이나 글의 意味, ② 마음의 발동 ③ 생각(사고), ④ 정취(情), 志는 7. 意思 표시, ㄴ. 意向, 意思 ㄷ. 감정, ㄹ. 희망의 뜻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22) "To define true madness, what isn't but to be nothing else but mad?" -William Shakespeare, Hamlet-

參 考 文 獻

- 金敏洙(1982), 國語意味論, 一朝閣.
- 김민수·홍용선(1981), 국어사전, 어문각.
- 김진우(1984), 말(言語)과 맘(心理), '말' 제9집, 연세대 한국어 학당.
- 문세영(1949), 수정증보 조선어 사전.
- 신기철·신용철(1975), 새 우리말 큰사전.
- 愼翼晟編(1985), 훔볼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沈在箕外 2명(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 李乙煥·李庸周(1964), 國語意味論, 首都出版社.
- 이승녕(1975), '뜻'의 多義攷, 동양학 제5집, 단대 동양학연구소.
- 이희승(198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조선어학회(1947), 조선말큰사전(제2권), 을유문화사.
- 정시호(1987), 언어상대성이론 연구, 성곡논총 제18집, 성곡학술문화재단.
- 丁時權·金宗澤(1983), 國語意味論, 형설출판사.
- 최규일 (1985), 한국어 (것)의 의미기능과 용법,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
- 최창렬(1981), '의미' 규정의 한계성, 국어교육 39, 4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허 발(1985), 낱말밭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허 웅(1981), 언어학, 샘문화사.
- Chomsky(1972), Language and Mind, and enlarged edn, New York : Harcourt Brace Firstedn.
- Hayakawa(196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Gerge Allen & Uuwin LTD.
- John Locke(195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ook III of words, chap III of General Terms.
- J. Katz(1982), Semantic Theory, New York, Evanston, San Francisco.
- Kempson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1974), Semantics, Harmonds worth, Penguin Books.
- Lyons(1969), Structural Semantics. Oxford.

Lyons(1981), *Language, Meaning and Context*, Fontana Paper-books.

Longman Group Ltd(1978), *Longman Dictionary of Meaning*, New York and London

Sapir(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Schaff(1974), *Sprache und Erkenntnis*, Rowohlt, Reinbek, Hamburg

S. Ullmann(1962), *Semantics*, Oxford Basil Blakwell.

Whorf(1964),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ed Carroll. John. B. The MIT Press.

〈Zusammenfassung〉

Die Bedeutung des Wortes Dütt(뜻) im Koreanischen

Chöe, Gyu-IL

Für einige Aspekte der Funktionsbedeutung des Wortes Dütt(뜻) im Koreanischen nehme ich zur näheren Bestimmung im Wesentlichen Bezug auf übergreifende Komponenten. Durch diesen Ansatzpunkt wird die Polysemie in ihrer syntaktischen Komponente verdeutlicht.

Im folgenden kurzgefaßt die Schwerpunkte :

1. Die Wortbedeutungen von ① Bedeutung, ② Begriff, ③ Definition, ④ Idee, ⑤ Wille, ⑥ Absicht, ⑦ Symbol, ⑧ Angabe, ⑨ Sinn(Beweggrund), ⑩ Bedeutsamkeit, ⑪ plan, ⑫ Geltung, ⑬ Vorsatz, ⑭ Zweck(Ziel), ⑮ Hoffnung, ⑯ Wunsch, ⑰ Traum, ⑱ Geist, ⑲ Gemüt, ⑳ Denken, ㉑ Überlegung, ㉒ Gefühl, ㉓ Ehrgeiz, ㉔ Erwartung, ㉕ Interesse, ㉖ Rede(Stimme), ㉗ Lage, ㉘ Verlangen, ㉙ Grundsatz, ㉚ Gesprächs(Thema) ㉛ Inhalt. usw.

Dies nur eine Auswahl der Bedeutungen.

2. Die Mehrdeutigkeit von Dütt(뜻) ergibt sich neben dem Spezifischen Charakter weitergehend dann aus der Sazzusammensetzung. Erst hier wird die aus dem Wort selbst nicht mehr erkennbare Bedeutung sichtbar.

3. Das Wort Dütt(뜻) besitzt außerdem kompressiven Charakter bei differentiellen Bedeutungen.